“부석사 불상, 국제적 관행 따라 반환돼야”

국회 문화유산포럼, 7월 27일 학술집담회

국내외 법조인들 발제통해
반환소송 법리적 해석제시
부석사 반환에는 한목소리
8월 17일 항소심에 주목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도난돼 국내 반입된 서산 부석사 불상(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8월 17일 예정된 가운데, 국제법과 민법의 시각에서 불상의 취득권 여부를 확인하는 학술집담회가 열렸다.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의 쟁점사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부석사 불상 반환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제21대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은 7월 27일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을 주제로 국제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은 수년째 이어진 뜨거운 감자다. 불상의 원 소장처인 부석사가 “해당 불상은 애초 고려말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고 주장하며, 불상을 압수해 보관 중인 한국정부(대전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석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상의 인도를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나 피고측인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한데 이어,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부석사 불상 봉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 6월 항소심 심리에 관음사가 피고인 검찰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부석사 불상 반환소송은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관음사 측이 변론을 통해 불상의 정당한 소유 및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우정)는 관음사를 창립한 주체가 왜구의 한 집단인 코노씨라는 점에서 약탈의 주체인 관음사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부석사 불상을 승계한 법인 관음사는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1970)’ 및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을 들어 “도난문화재는 원소유국으로 반환하는 국제법적 경향을 참작해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임 前 주튀니지대사도 “이 사건은 도난 불상을 반환받으려는 일본측과 과거 약탈된 불상을 회복하려는 한국간 소송이 아니라, 불상을 원봉안처에 봉안하고자 하는 부석사와 법원 판결에 대비해 도난불상을 몰수해 억류하고 있는 한국정부간의 소송이 됐다”며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송의 진정한 목적인 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봉안 문제는 잊혀지고 불상 또한 수장고에 방치된 채 퇴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벗어나 국제관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불상 반환소송의 항소심 심리는 8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7월 17일 한마음선원 대중들이 승탑을 제막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혜원 스님 5주기 다례재 봉행

7월 17일 안양본원서…승탑 제막식도 함께 이뤄져

한마음선원 본원 前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입적 5주기를 맞아 7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각령전 승단 헌다와 헌향, 헌화를 시작으로 신도 임원단 헌화, 입정, 합창단 음성공양, 이사장 스님 인사로 이어졌다.

다례재와 함께 이날은 대행선사 비구니 상좌들의 승탑 제막식이 함께 봉행되었다. 안양 본원 내에 자리한 승탑에는 연자당 혜원 스님과 함께 여덟분의 비구니 상좌스님들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대중승탑은 대행 스님의 유훈에 따른 것으로 승탑제막식에서는 반야심경 봉독과 함께 제막천 제거, 위패 봉안, 선법가 공양 등이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례재를 중계했으며, 다례재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은 각자 가정에 혜원 스님을 그리워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큰스님께서 저희 제자들을 끝없이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크신 사랑에 가슴이 벅차고 목이 메인다. 그 사랑을 새기며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하였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대국민 공모전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 공모전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출품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외국인 인식 확장에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와 성인(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이면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와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수상자로 총 49명을 선정하며, 상금 규모는 총 3800만 원이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이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서울노인센터서 장기기증 캠페인

7월 21일, 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펼쳐



장기기증에 동참한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2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오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웰다잉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준비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평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함상원 부장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면서 삶과 죽음이 동시 이뤄지는 삶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후 장기기증이 생명이 절실한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직원들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불사에 동참해주신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 및 이용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부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캠페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이식 대기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휴전서 평화로…평화 만드는 건 우리”

민추본, 7월 23일 임진각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정전 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 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펼쳐 나갑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를 비롯해 7대 종교와 전국 370여 개 시민단체, 70여 개 국제파트너 단체가 모인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은 7월 23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개최했다.

문화제에서는 가수 이은미, 래스피스, 신나는 섬의 음악 공연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인사들의 발언, 대형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리’ 행동, 평화선언 서명 및 평화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추본 회원이자 고려대 병원법당 지도법사인 지현 스님은 ‘평화의 약속’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임은호 기자



한반도 종전 평화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템플스테이 20주년 대국민 공모전

2022.08.01 ~ 09.12
(결과 발표 : 2022.09.30)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참가대상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템플스테이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 그리고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맞이할 순간을 그리다

참가부문
영상, 사진, 그림, 수필(총 4개 부문)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20thcontest@templestay.com

- 영상: 1) FHD 이상의 해상도(최소 1208 x 720 px 이상) 2) 숏츠 영상 포맷 혹은 최대 3분 이내의 영상물 3) avi, mp4 포맷의 파일 형태로 제출
- 사진: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JPG 형태의 이미지 파일 2) 이미지 합성은 불가
- 수필: 1)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한 자유로운 형태의 글 2) 한글파일 형태로 제출
- 그림: 1)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한 자유로운 형태의 그림 2) 4절지(11세~13세) 혹은 8절지(5세~10세) 응모 3) JPG, PNG, PDF 파일(스캔) 응모 * 상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필요

시상내역 * 표기 : 인원수(인 당 상금)

공모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영상(성인)		1명(300만원)	2명(100만원)	2명(50만원)	5명(30만원)
사진(성인)		1명(200만원)	2명(50만원)	2명(30만원)	5명(20만원)
그림	어린이(5세~10세)	1명(50만원)	2명(20만원)	2명(체험권)	5명(기념품)
그림	어린이(11세~13세)	1명(50만원)	2명(20만원)	2명(체험권)	5명(기념품)
수필	청소년(14세~19세)	1명(50만원)	2명(30만원)	2명(20만원)	5명(기념품)
수필	성인	1명(100만원)	2명(50만원)	2명(30만원)	5명(기념품)

문의사항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운영사무국 : 02-362-3332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참가대상 * 출품작 수 제한 없음.
성인(대학생 및 일반인),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공모주제
친환경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불교문화유산

참가부문
일러스트, 캐릭터(2D, 3D 디자인)

참가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digitalcontest@templestay.com

- 일러스트, 캐릭터 (2D, 3D): JPG, PNG, PDF 파일 응모 * 상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필요

시상내역 * 표기 : 인원수(인 당 상금)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수량(작품)	1	2	4	6	10
상금	50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만원	기념품

문의사항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운영사무국 : 02-853-4323

템플스테이 체험 분야 / 불교 디지털 콘텐츠 분야

※ 출품 작품은 **저작권, 초상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간주 사항 발견된 경우 수상을 취소**함

템플스테이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